

FES

Future
Entrepreneurs'
Society

**BE
READY FOR THE
NEXT SHIFT**



FES | 미래 기업가들의 모임

세상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를 배양하다

FES가 정의하는 기업가란? 세상과 자신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고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결단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1

고려대학교 No. 1
&
유일한 기업가 학회

23

1996년 창설 이래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경영학회

400

각 분야에서 활약중인
400여명의
Alumni 배출



01

담당 교수님

"여러분들을 기업가 정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가 정신의 정의는 **문제 해결**입니다. 기업가란 문제를 문제로 감내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이를 문제로 여길 뿐 이와 관련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면 소셜 벤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지금 현재 지닌 자원의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꿈꾸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FES는 고려대 경영대학의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종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FES의 세가지 구심점인 **A) 실전 창업 부문, B) 컨설팅 부문, C) 동문 선배와의 네트워크 부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움직입니다. A)가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B)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화를 앞당기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졸업한 동문들의 그룹인 C)는 컨설팅과 창업이라는 두 가지 축이 실제로 원활히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FES 미래의 핵심은 결국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하나로 합해질 때 FES의 진정한 힘은 생겨납니다. FES가 고려대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회로 거듭나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기대합니다.

FES 지도 교수
남 대 일

02

회장 인사말

고려대학교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경영학회인 FES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FES는 Future Entrepreneurs' Society의 약자로, 미래 기업가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저희는 기업가를 표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기업가(Entrepreneur)란,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뜻하는 프랑스어 'Entreprendre'에서 유래하였으며, 관습에 얹매이지 않고 변화를 탐구하고 대응하며, 이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를 배양'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저희 FES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여 유의미한 변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학회를 만들고 지켜온 선배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변화를 이끌고 있고, 활동중인 후배 FESian들은 치열한 고민과 연습을 통해 다음 변화의 흐름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FES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끈끈한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활동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업가라는 꿈에 다가가기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며 경험을 반복한 끝에, 저희는 차별화된 FES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 활동은 크게 기업가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Visioning Curriculum과 이를 실제 '비즈니스적 고민과 실행'으로 연결시키는 Research Curriculu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외부교류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FES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구성원들입니다. 작은 스터디룸에 모여 밤새 논의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정상급 기업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들 뜻지않게 매서운 속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활동 기수들은 10년 후 사회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기업가를 꿈꾸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FES 제 40대 회장

이승건

03

DREAM



Visioning Session

FES의 활동은 자신의 비전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담당 매니저의 주도 하에 오랜 노하우로 마련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FESian들은 자신의 진정한 꿈과 비전을 찾아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400여명의 Alumni Network와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의 꿈과 비전 및 사회 진출 경로에 대해 듣고 자신에 맞는 커리어를 탐색하며 구체화합니다.

Why Vision?

Visioning Lectures

How to find it?

Visioning Case Solving

How to develop it?

Visioning Session

Actualization

Career Session



Entrepreneurship Session & Lectures

FES는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을 지향하는 학회입니다. 올바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FESian들은 매 학기 Entrepreneurship session 및 기업가 Lecture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며, 기업가로서의 역량과 실제적인 경험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과거 대표적 기업가 정신 렉쳐 사례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 -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前 NAVER 공동창업 멤버 및 고문) - 카카오톡 김범수 의장
스트롱홀드 우종욱 대표 -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대표

04

THINK



IT SUBJECT

Problem solving

PPT & Presentation

Business Framework

Marketing Strategy

Entrepreneurship

BM Lecture

Seminars

FESian Intensive Training

FESian들이 활동시기 별로 각 시기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돋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Intensive Training Program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FES Alumni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제별 Lecture와 Case Study가 담당 매니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Seminar

매주 금요일 실제 기업과 연계한 Real Business Case Study를 통해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연습을 하고 있으며 세미나에는
관련 기업가와 실무진이 참여하여 Business에 대한 현실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과 거 세 미 나 사례

스타트업 My Real Trip,
관광상품 Repositioning
전략 구축

Line Friends,
신 경쟁전략 수립

CJ제일제당 컨디션 헛개수,
Repositioning 전략 구축

YG Entertainment,
신 사업전략 구축

신세계 백화점,
본점 푸드 마켓의 확장 전략



Internship Opportunities

300여 명의 FAN(FES Alumni Network) 조직은 FES의 YB 회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현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력서 검토와 모의 면접 등을 통해 인턴십 지원 시에도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ESians 진출현황

외국계 : Google, P&G, IBM, Johnson&Johnson, Coca-Cola, Leo Burnett, NIKE, Oracle
대기업 : 삼성전자, 삼성물산, SK에너지, GS칼텍스, 기아차, 현대차, NHN, 두산, 제일기획, CJ, SKT, KT, LG전자
벤처창업 : Stronghold, Icare, Rovectin, Brainmedic, 마이리얼트립, 어반팟, 짜이서울, 피플펀드, 메이미
컨설팅 : McKinsey & Co., BCG, Bain & Co., A. T. Kearney, Deloitte, Oliver Wyman, T-Plus
금융 : JP Morgan,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Hermes Partners, Deutsche Bank, 삼일회계법인, 한국투자증권
학업 : Univ. of Washington, Univ. of Michigan, Univ. of Pennsylvania, INSEAD, 서울대 대학원, 고려대 대학원
공공기관 및 기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otra, 한국은행, 김앤장 법무법인

Startup by FESian

중국인 관광객에게 행복한 한국여행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한국여행 정보잡지
짜이서울 by 23기 장재영



디지털, 기계, 응용화학 등의 상이한 분야의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원두 로스터기 제조업체
스트롱홀드 by 18기 우종욱



세계 각지, 다양한 분야의 현지 사람들이 직접
만든 여행상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이리얼트립 by 26기 이동건



전국 장인 로스팅 카페의 원두를 한 곳에 모은
국내 최초 커피 편집샵
어반팟 by 31기 이무림 & 김원휘



06

CONNECT

Internal Network

멘토링

가족과 같은 끈끈함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300 여 명의 Alumni 중 자신과 맞는 멘토가 연결됩니다. 멘토링을 통해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과 커리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뒤풀이

정기 세미나와 각종 강연, 교육 뒤에 이어지는 뒤풀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OB 선배님, 기업가분들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FESians' Night

매년 2월 모든 FESian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장 큰 규모의 연중행사입니다. 교수님과 OB 선배님들을 모두 초청하여 지난 일 년 간의 학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운영진이 준비한 행사를 다같이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External Network

고려대 MCC, 연세대 MARP, 서울대 N-CEO, Babson College 등 외부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학회 간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친목을 다집니다.

외부 학생 교류

매 학기 사회 각계 각층에 계시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가 분들과 지속적으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부터)

박용만 (주) 두산그룹 회장
김정호 NAVER 창업 멤버 및 고문
박재욱 VCNC CEO
호창성 Vingle 대표



LETTERS from ALUMNI

창업

FES에 들어와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모두가 스스로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학회원들과 자신의 꿈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꿈에 대해 고민했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는 길이지만, 함께하는 학회원들이 있기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본인의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FES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이동건 (26기)
MyRealTrip



FES가 제 창업에 준 도움은 명확합니다. 논리적 사고법, ppt 실력, 강의력, 기업가 네트워크, … 그런데 이런 것들이 FES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FES는 ‘환경’ 그 자체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꿈을 꾸는 동기들, 선배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어느새 저 스스로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을 ‘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이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FES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 즉 나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일 (33기)
ConsultTEPS

컨설팅

실제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룬다는 사실에 호기심으로 시작한 FES였지만, 시작보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고 아직도 받고 있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직입니다. 막연하게 교수를 꿈꾸던 저에게 수많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 진로를 바꾸게 해주었고, 어떤 일에 행복함을 느끼는지 깨닫게 해주었으며, 끊임없이 나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고 진지하게 고민을 나눠주는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고 성장할 제 자신과 학회원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정수 (36기)
Oliver Wyman



김승한 (40기)
Monitor-Deloitte Consulting

FES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조직입니다. 여러 컨설팅 펌에서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3학년 2학기로 다시 복학했던 때에, 스펙은 쌓였지만 내 자신의 ‘성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FES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장애물로 꽉 막힌 상황에서도 FES는 저에게 끊임없이 고민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제 자신이 한 단계 더 역량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FES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신체적 성장을 위해 성장통을 겪듯이 아프고 저리겠지만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임을 자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혜진 (27기)
Google

인생 자체가 풍요로워진다? 단편 영화를 제작해볼 만큼 영화를 좋아해 한국의 디즈니를 만들어내겠다는 A군, 중국문화라면 빠싹해 중국을 누비는 기업가를 꿈꾸는 B양, 청바지에 미쳐 북한 사람에게도 청바지 브랜드를 팔겠다며 의류 사업을 하던 C군. ‘FES에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머리맞대면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해결 솔루션이 나오곤 했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생각한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각양각색의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며 넓은 시각을 배우고 생활하니 제 인생 자체가 풍요로워 졌습니다.

금융

전역 후 한동안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할 것은 많은데, 어떤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 헤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FES 설명회에서 저는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왜’ 그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FES는 세미나를 통한 역량적 향상과 함께 제 인생을 통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진명 (30기)
IMM Private Equity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FES는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배울 것이 많은 최고의 조직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성장과 꿈에 대한 막연한 갈증으로 FES에 들어왔습니다. 이 곳에서 훌륭한 동료들, 선후배들과 함께였기에, 치열한 성장의 과정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비전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막연했던 꿈들이 구체화되어갔습니다. 마음 속에 꿈틀거리는 꿈이 있다면,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든든한 동료들이 필요하다면, FES는 대학시절 최고의 선택이 될겁니다. 각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윤지 (35기)
미래에셋대우

안녕하세요 FES 24기 권재현입니다. 이번에 43기에 지원하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FES의 매력은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생각하는 힘과 협업을 통한 협동심 배양도 좋겠지만, 저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FES 동기들, 선후배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자산이 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은 변하지만 친구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권재현 (24기)
JP Morgan

- 열정: 세상과 자신의 삶을 향한 애정 어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인재
- 혁신: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인재
- 도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결단을 이행할 수 있는 인재
- 책임: 스스로 내린 결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재



FAQ

Q1. FES에 지원하려면 학점과 영어 성적과 같은 스펙이 있어야 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FES는 신입회원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점이나 영어 성적, 수상 경력 등은 스펙에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서 질문 및 면접 내용 또한 지원자의 꿈과 지원동기, 활동에 대한 열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명시된 질문에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Q2. 경영대 학생도 아니고, 경영학과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지원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FES 회원 중 절반가량이 경영대 이외의 전공을 가지고 있으며, 비경영 전공인 기존 FESian들 역시 세미나 활동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FES의 세미나 활동에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선발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경영 관련 지식보다는 생각, 의지 FES와의 Fit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공에 따른 이익 및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Q3. 학점관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활동이 힘든가요?

FES 활동은 체계적으로 짜여진 커리큘럼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기업과 연계한 케이스를 매주 해결하다 보니 팀 모임 시간이 많아 FESian이 되면 더 바쁘고 학회 활동에 들이는 노력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회 활동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은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투자의 시간이며, 좋은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관리에 충실 하신다면, 학점 관리 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Q4. FES는 창업 동아리 인가요?

'FES = 창업 동아리'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FES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미래 '기업가'들의 모임입니다. 창업을 목적으로 모인 모임이라기 보다는 꿈과 가치를 찾고 성장하며 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FESian들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8 가을 학기 44기 리쿠르팅 일정 - 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3	4	5	6 리크루팅 설명회 저녁 7시	7 지원서 마감 오후 5시	8 1-1차 면접 1-2차 면접
9 2차 면접 44기 발표	10 신입생 환영회	11	12	13	14	15

2018.09.06 목 오후 7시 현대자동차 경영관 B308

FES의 비전과 활동 내용, 인재상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로,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OB FESian들의 이야기와 기존 FESian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FES에 대해 한층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제출

2018.09.07 금 오후 5시까지 president@fes.kr로 지원서제출

홈페이지에 접속, Join FES > Application 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에 president@fes.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1-1차 면접

그룹 Fit Interview

지원자 두 분씩 그룹 형태로 진행되는 Fit Interview입니다. 작성해주신 지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님의 비전과 동기애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글로는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을 좀 더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 1-2차 면접

Pre - Session Interview

먼저, 지원자 두 분이 한 material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후 두 지원자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후, 두 지원자는 면접실로 이동하여 면접관과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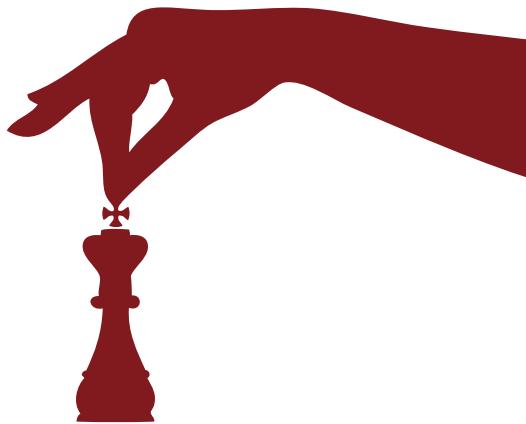
| 2차 최종면접

OB Interview

1차 인터뷰를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 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2차 인터뷰에는 FES Alumni가 함께 참여합니다.

문의사항

인사부장 010-9561-0810



FES

Future
Entrepreneurs'
Society

W E B www.fes.kr

F B [facebook.com / FESians](https://facebook.com/FESians)

INSTA @FES